

The·K

Interview

조승연 작가
양곤성 서울신우초 교사

스승의 날 이벤트 '눈부신 시간을 담다'

서울 여명학교
부산 동래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

The-K Focus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카르페디엠>



Monthly Magazine
May 2019
Vol.21



학창시절 선생님들의 사랑을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따뜻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마음속 깊이 존경합니다.

2019. 5.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필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 밖에 없다. "리스본행 야간열차"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사에게 영혼의
떨림이란 가르치는 일이겠지요. 선생님들의
영혼이 떨리는 매 순간을 응원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전북교육감 김승환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현성



설레는 교단의 꿈,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제주 외도초등학교장 이금남

CONTENTS

2019 MAY VOL.21



6

여는 글
당신이 피운 여러 개의 봄

8

Essay
내 마음 속 영원한 스승
장석주 시인

10

Interview
조승연의 사전에 적힌 사랑의 의미
조승연 작가

16

Interview
선생님은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괜찮다
양근성 서울신우초 교사

22

스승의 날 이벤트 '눈부신 시간을 담다'
서울 여명학교
부산 동래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

30

아름다운 동행
우리의 별, 우리의 레전드 큰언니를 위한 카네이션
최희경 서산 서령초 교장 & **최은경** 서산 가사초 교감 &
최희영 대전중원초 교장 & **최희정** 태안 시목초 교사

36

먼 나라 교육 편지
꿈이 있으면 행복하고, 꿈 너머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베트남 하노이
유효정 부천상록학교 교사

40

트렌드 GO GO
VR 시대의 의료 혁명

42

브랜 뉴 여행
도시 문화 산책 ④
타이베이, 지극한 마음의 도시로

48

The-K Issue
교직원공제회 2018 결산

50

The-K Focus
교직원라이프 건강 정보 & 이벤트

52

The-K Focus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카르페디엠>
환희로 가득 찬 우리의 순간을 위해

56

The-K Family
천년고도 경주, 가족과 함께 힐링 노닐다
The-K호텔경주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5월 즉석당첨 이벤트

63

편집실에서 띄우는 편지
어디서나 피어오르는 사랑

The-K
VOL.21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차성수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9년 5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성미 이경희 강나은
교열	박해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이은정 uncheang@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황원 장병국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당신이 피운 여러 개의 봄

어느덧 5월의 햇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5월의 봄이지만
여태껏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일까요.
올해는 유난히 달라 보입니다.

피고 지는 꽃들 속에서 움츠린 기억을 꺼내봅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조용한 등대의 불빛처럼
우리를 이끌어준 당신들.

잠 못 들던 수많은 밤, 수차례 요동치고 헤매던 마음을
조금씩 천천히 잡아주던 당신의 손을 잊지 못합니다.
그 손 놓치기 싫어 더욱 학교로 달려가곤 했지요.
당신이 곁에 있어주어 어느새 따뜻한 동행을 배웠습니다.

“피기도 힘들지만 지기도 힘들다.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면 언젠간 영근다.
그렇게 봄이 되어라.”

당신의 가르침으로 누구보다 빛나는 봄이 된 지금,
이제야 당신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봄은 당신으로부터 피기 시작했음을
우리의 봄은 당신과 함께 영글었음을
우리는 서로가 축복이었고, 모두가 사랑이었음을.



내 마음 속 영원한 스승

글 장석주(시인)

내 인생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머무른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일찍이 공교육 궤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 이탈은 여러 곡절이 합쳐져 일어난 사태였다. 불운한 일이지만 내 운명이거나 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까닭에 나는 시립 도서관 등지를 부지런히 다니며 몸 바쳐 혼자 배움의 길을 헤쳐나가야만 했다. 잇단 시행착오를 겪는 고된 과정이었다. 나이가 들자 경력과 경륜을 인정받아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일이 잦아졌다. 꽤 오랫동안 여러 사회교육 센터나 대학교의 문예창작과에서 문학 창작과 이론을 가르쳤다.

나는 짧은 배움의 과정 중 좋은 스승을 여럿 만났다. 이것이 인생의 이번 생이 내게 베푼 드문 행운이고, 내가 누린 지복이다. 첫 번째 좋은 스승은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30대 초반의 국어 교사 최상락 선생님이다. 열정이 넘치고 다혈질이지만, 선생의 권위로 학생을 억누르는 법이 없었다.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느린하지 않고 늘 기운이 충만하고 생동했다. 그 시절 나는 학과 공부를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학교 도서관에 처박혀 시를 끼적이거나 단편소설 습작에 더 열을 올리는 철부지였다. 16세 때 습작 시 몇 편을 등사판으로 엮어 펴낸 조잡한 시집을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그걸 읽은 뒤 선생님은 “아마도 너는 예이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예이츠가 얼마나 훌륭한 시인인지를 알지 못했다. 전언에 의하면, 선생님은 상급생 교실에서 내 시를 읽어주고 “우리 학교에 이런 놀라운 학생이 있다!”라고 말하셨다 한다. 가끔 낯선 상급생들이 내 교복 상의 가슴팍에 부착된 이름표를 확인하고 알은척했다. 까칠하고 예민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문제아인 내게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의 말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달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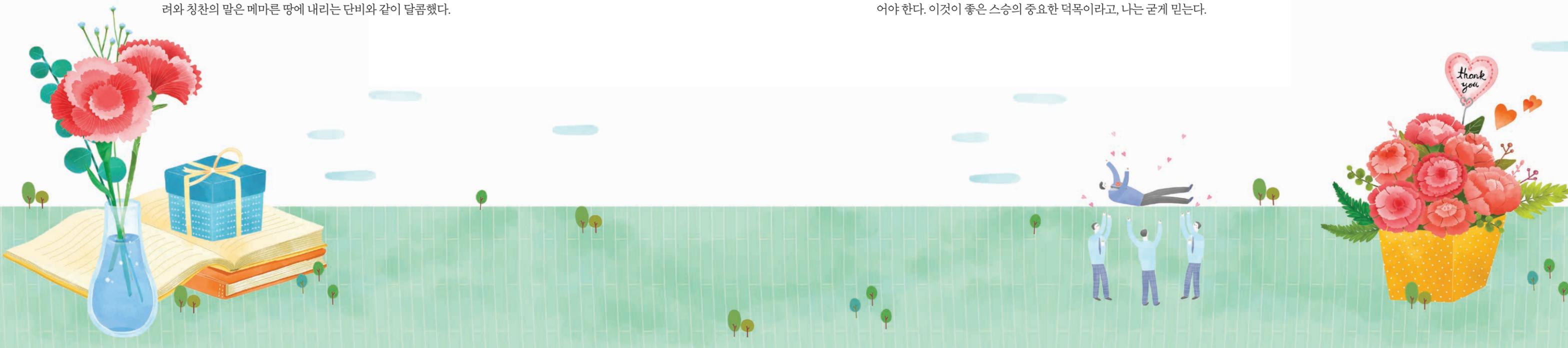
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박차고 나왔다. 실업계 교과목에 흥미를 잃은 데다 교원 교사의 폭력에 인격적 모멸감과 환멸로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그때는 남자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폭력은 일상다반사였다. 나는 심연인 인간을 향한 모든 폭력을 야만으로 여겨 반대했다. 어떤 명분이든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를 덜된 인간이라 무시하고 멸시했다. 학교를 등진 뒤 최상락 선생님과도 이별했다. 풍문에 의하면 선생님은 일본으로 건너가셨다고 했다. 나는 20대 때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시인과 문학평론가로 40년 넘게 활동을 이어오며 오늘에 이르렀다. 세월이 반세기가 지났지만 나는 30대 젊은 국어 교사 최상락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얼굴과 표정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 선생님은 내 마음속 영원한 스승이자 좋은 스승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가르침을 받은 경험과 가르친 경험이 두터워지니 가르치는 자의 덕목과 올바름에 대해 궁리하고 그 고갱이를 헤아리게 되었다. 여러 가닥으로 흩어진 궁리는 결국 좋은 스승이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으로 모아진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의 필요에 부응할 만한 자격을 갖춘,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가르치는 자에게 필수불가결한 기초적 소양과 토대를 만든다고 공감하기 때문이다.

전공 분야에 대한 배움의 경력이 길고 두루 아는 게 많은 이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만이 곧 좋은 스승의 조건일 수는 없다. 좋은 스승은 훌륭한 인격의 바탕을 가져야 한다. 좋은 스승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너그럽고, 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받는 자를 가늠하게 여기고 어여뵐어야 한다. 제자의 배움과 재능의 나타남을 눈여겨보고, 그 노고와 성취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또한 실패에 좌절하고 방황하는 제자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이것이 좋은 스승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장석주 시인

시인이자 인문학 저술가. 1979년 조 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와 문학평론으로 등단했다. 올해로 등단 40주년을 맞은 시인은 지극히 넓고도 깊은 시어로 참으로 작디작은 울음을 이야기한다. 동덕여대, 경희사 이버대, 명지전문대 등에서 문예 창작과 이론을 가르쳤다. <철학자의 사물들> <풍경의 탄생> <20세기 한국문학의 탐험>(전 5권) 등 100여 권의 책을 썼다.





조승연의
사전에 적힌
사랑의
의미

조승연의 이름 석 자 앞에 붙는 수식어는 너무 많다. 언어 천재, 공부의 신, 세계 문화 전문가, 오마이스쿨 대표 강사, 베스트셀러 작가 등. 그만큼 조승연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그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의 사전 첫 장, 첫머리에는 '가능'이 아닌 '사랑'이 쓰여 있을 거라 믿는다. 인문학의 중요성을 외치는 그의 삶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조승연이 그 어떤 수식어 없이 홀로 빛날 수 있는 이유 역시 그가 가진 사랑 때문일 것이다. 글 이성미 사진 한상무



승연아, 행복은 가까운 데 있다

부럽다. 조승연 작가는 부러운 사람이다. 앞서 나열한 수식어들 때문이 아니다. 확인된 바 없는 재력 때문도 아니다. 그가 진정 부러운 이유는 채 불혹(不惑)이 되지 않은 나이에 중심(從心)에 도달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해도 ‘조승연’이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 성인(聖人)의 경지는 아닐지라도 그는 점점 하늘 높이 가지를 뻗는 나무처럼 보인다. 문득 그의 삶에 토양 한 줌, 햇살 한 줄기로 존재했을 스승이 궁금해졌다.

“어린 시절 한 학년에 한 반이 전부인 강원도 원주의 작은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가 작아서였는지 제가 작아서였는지 선생님의 역할은 부모에 더 가까웠죠. 특히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셨던 이난영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학교 후 갈 데가 마땅치 않던 저와 늘 놀아주셨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꼬리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 강아지 인형을 주셨는데, 그 기억이 참 좋았나 봐요. 마당에서 반려견을 키우며 전원생활을 하는 게 인생 목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난영 선생님뿐 아니라 어린 시절 만난 선생님들은 ‘행복은 가까

운 데 있다’라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려졌듯, 그가 중학교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염증 때문이었다. 서울로 전학 가 만난 선생님들은 그의 눈에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권위적인 사람으로 비쳤다.

“한 교실에 70명이나 되는 학생이 모여 앉아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아이를 선생님 한 분이 다 돌봐야 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선생님도 무척 힘드셨을 거 같아요. 교과서를 들고 쫓아다니는 저를 귀찮게 여긴 것도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이해하게 되었죠.”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다행히 선택지가 많은 교육을 받으며 잘 자랐다. 뉴욕대학교 경영학사(NYU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고, 프랑스 최고 미술사 학교인 에콜 뒤 루브르(Ecole du Louvre)에서 2년간 수학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지식을 수집한 그는 당당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스승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해주는 사람

질문하던 작은 학생이 질문받는 어른이 되었듯, 시간이 흐르



“
저에게 선생님이란
‘보이지 않던 걸 보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숲에서 어떤 것이 전나무이고,
어떤 것이 잣나무인지 알기 전까진
모두 다 같은 나무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떤 나무인지 알려주시면
숲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재미도 달라지고요.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 보일 거예요.
”

자 그가 다니던 한국의 학교 모습도 많이 변했다. 오늘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을 이야기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할 학생의 수도 확연히 줄었다. 그러나 다른 것도 바뀌었다. 바로 교권이다. 해마다 많은 교사가 학생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상처 입고 학교를 떠난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은 학교가 가진 강제성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는 꼭 가야 하는 곳이니깐요. 그 안에 교사가 감독관처럼 있고요. 거기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만약 학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가는 곳이라면 과연 반발심이 생길까요? 과거 학생이 스승을 찾아가 배움을 청한 것처럼, 학생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세우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교사에게 청해 듣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갈등은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출세를 향해 달리는 경주마가 되는 것도 문제다. 조승연 작가 역시 스물두 살에 <공부기술>이라는 책을 펴내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지만, 학생들이 출세를 위해 공부하길 바라진 않는다. 낚시바늘 같은 공부로 출세를 건어 올리지 말고, 촘촘한 그물망 같은 공부로 인생의 행복을 끌어올리길





“인류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것이죠.”

바랄 뿐이다. 그는 “공부는 인생의 긴 여정을 멎고 행복으로 채워주는 동반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다.

“저에게 선생님이란 ‘보이지 않던 걸 보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숲에서 어떤 것이 전나무이고, 어떤 것이 잣나무인지 알기 전까진 모두 다 같은 나무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떤 나무인지 알려주시면 숲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재미도 달라지고요.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 보일 거예요.”

우리 한번 티격태격해봅시다

조승연 작가는 평소 “교육의 목적은 문화인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인문학’을 꼽는다.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야기 인문학> <비즈니스 인문학> <단어 인문학> 등의 책도 펴냈다. 내용과 성격은 달라도 그가 펴낸 책 대부분이 인문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조승연 작가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라도 많은 사람이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어떻게 인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 조승연 작가는 ‘티격태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학교 안에서 다양하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나라도 드물어요. 국어, 수학, 도덕이 모두 인문학이니까요. 다만 그것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황희 정승의 고사(古事)를 가르치며 ‘황희 정승은 훌륭한 분이니 무조건 본받아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고 답을 듣는 것이죠. 교과서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자유와 틀린 이유에 대한 논리가 합당하면 오답이 아니라고 인정해줄 자유도 있어야 해요. 인문학의 기본은 ‘티격태격’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론 현장은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결투장처럼 보인다. 상대와 논리로 묻고 답하고 배우려 하는 대신 지식으로 상대를 억누르려 한다. 하지만 토론 현장은 다양한 색깔의 생각이 모여 한 장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빛나야 한다. 아름다워야 한다.

“세상은 정답이기 전에 아름답다.”(가스통 바슐라르) 그의 책 <그물망 공부법>의 첫 장에 적혀 있는 말이다. <비즈니스 인

문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항상 이기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 전해주는 지혜다.”

나와 99.99% 닮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올바른 토론 문화, 인문학 교육이 바르게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있다. 바로 ‘같음’과 ‘다름’ 그리고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사람인 이상 그와 나는 99.99% 닮았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때리면 아프고, 세월이 흐르면 늙는다. 사람이기에 우리는 많은 것이 닮았다. 피부색, 고향, 학력 등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0.01%도 채 되지 않으며 대부분 사소하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기본적인 애정, 그것이 인류애다. 조승연 작가가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 주저 없이 배울 수 있었던 비결도 ‘같음’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질감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은 결국 배움으로 향할 것이다.

“인류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든 단지 상황만을 넘겨짚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 우리는 누구든 남에 대해 완벽히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조차 다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마찬가지로 남도 나를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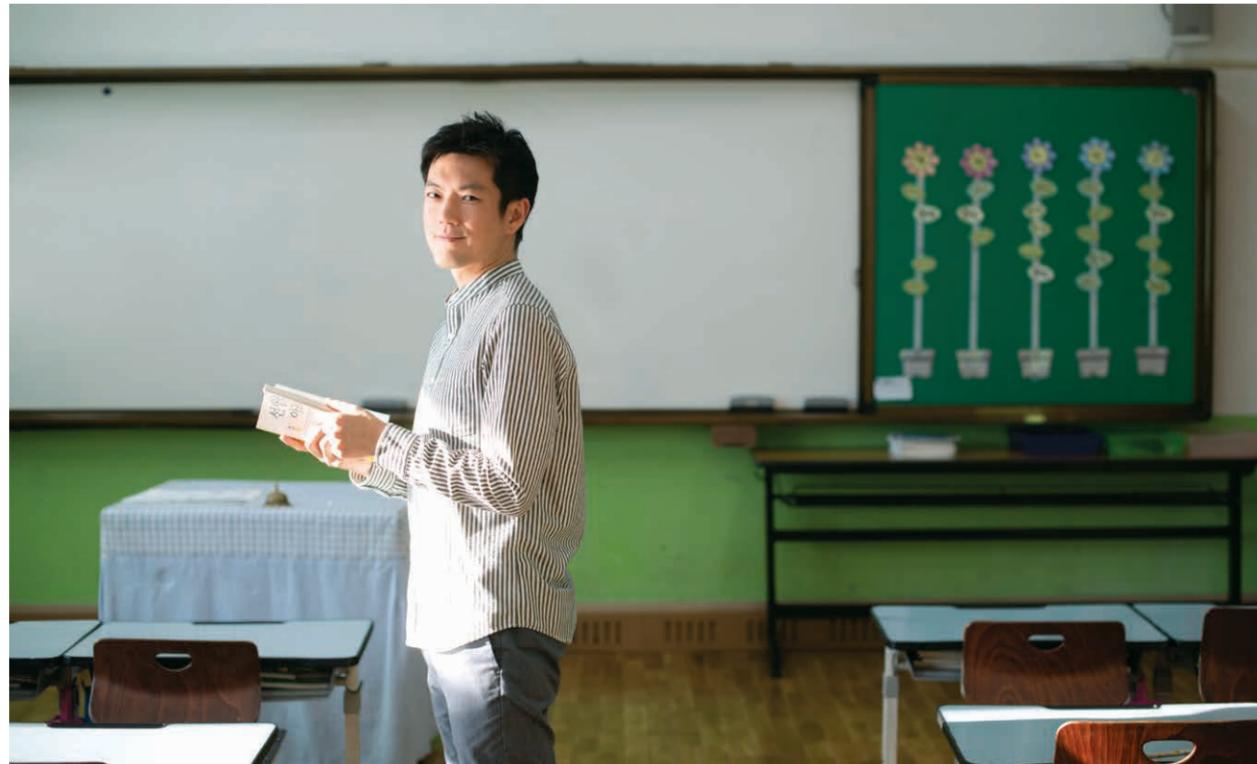
그가 ‘시크’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하다. 서문에서 말하듯 조승연 작가가 만난 프랑스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느니 ‘실패’했다느니 하는 정의를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나다. 조승연의 중심에도 오로지 조승연이 있는 것처럼.

다만 대학생에서 작가로, 세계 문화 전문가로, 책에서 만나는 조승연 작가의 소개 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나 “배움은 악의 어머니일 수 없고, 올바른 무지함의 딸일 수 없다”라는 프랑스 시인 아그리파 도비네의 말처럼, 계속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저절로 그를 더욱 선(善)으로 이끌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 사전에 적힌 ‘조승연’이라는 의미는 그러하다.

선생님은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괜찮다

양곤성 서울신우초 교사

처음 교단에 선 날을 기억한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작은 소리로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보고 웃는 연습도 해보았다.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참 많이도 떨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실로 향하는 길에서 전혀 다른 떨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설렘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 애들아, 선생님이 아프다. 글 이성미 사진 한상무



누가 내 날개와 마음을 찢어놓았니

교사로 처음 부임하던 해, 문구점에 들러 작은 종을 하나 샀다. “주목” 외치며 종을 누르니 ‘팅’ 하고 맑은 소리가 났다. 그러자 아이들의 시선이 서둘러 선생님 쪽으로 향했다. 그 작고 빠른 움직임이 기특하고 예뻐다. 20대 중반의 양곤성 교사는 그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어요. 모르던 것을 알아가고, 점점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는 즐거움이 컸거든요.”

그 후 작은 종은 15년째 교단 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낡고 녹슬었지만 여전히 맑은 소리가 난다.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 달라졌다. 교실 풍경도 해가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거나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점점 강도를 더해 들려온다. 이런 일로 한국에서 지난 2009년부터 약 4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을 겪다 교편을 놓거나 휴직한 교사는 무려 397명. 2008년부터 4년 사이 자살한 교사의 수도 73명에 달한다(2016 교단보고서 6편, EBS 뉴

스 2016. 10. 7.). 언제부터인가 교사란 직업은 극한 직업이 되어버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오늘날 교사들이 아픈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학생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생님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학생, 교사로서의 직업이 갖는 본질적 권위는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 자기 권리는 절대 선인 듯 주장하는 학생, 교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마치 전쟁 영웅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생, 이를 동조하고 즐기는 학생까지 오늘날 교권은 ‘추락’이라는 단어로도 모자랄 만큼 내팽개쳐져 있다.

“요즘 교실의 모습은 현 교사들이 자라온 1970~1990년대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저희가 학생일 때는 선생님이 무서워 눈치를 봐야 했는데, 막상 교사가 되고 나니 반대로 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과거 일부 교사의 과격한 행동까지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하늘처럼 생각하며 학창 시절을 보낸 교사들에게 현 세태는 요지경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선생님은 가슴속에 눈물샘이 있다

“교사를 아프게 하는 요소는 너무 많아요. 그중 하나는 교사를 적대시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교육 현장을 말하는 교사의 목소리는 늘 무시되는 데 비해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가 듣는 비난의 목소리는 너무도 큼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파도 소리 없이 숨 죽여 울 수밖에 없어요.”

학생의 반항적 행동은 대부분 가정과 사회 문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늘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온다. 지금의 교사에게는 문제 행동을 일삼는 학생을 대응할 만한 도구가 없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학생의 인권은 향상을, 교사의 인권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 향상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이 성장할수록 교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과 고발을 감수해가며 학생 지도를 위해 노력할까? 교권이 무너진다면 당연히 교육도 무

너진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올바른 교육을 굳건히 세우는 커다란 기둥이며, 이를 양립시키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교육은 바로 설 수 없다.

“과거 교사는 지식 전달자, 교육자로서 역할이 컸어요.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교사는 교실 안에선 보육을, 교실 밖에선 행정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양곤성 교사의 말처럼 늘어나는 행정 업무도 문제다. 교무 업무 시스템,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듀파인(EduFine,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등 업무의 디지털화로 생긴 정보부 업무는 물론 자유학기제, 선택과목제,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학교 특색 사업, 지역 특색 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 체계의 복잡화로 교사가 수업 외 해야 할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잘할수록 능력 있는 교사로 인정받는다. 그러다 보면 교사들은 어느새 수업보다는 업무에 더 신경 쓰는 자신을 보며 자괴감을 느낀다.

더불어 오늘날 교사는 지식 전달자보다는 보육자로서 아이들의 원활한 교우 관계, 학생의 안전한 생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학생에게 무관심한 교사’로 낙인찍힌다. 행정 업무 역시 소홀하면 ‘무능력한 교사’가 된다. 자연스레 교사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다. 전에 난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선생님들의 가슴엔 늘 깊고 굵은 상처가 더해진다.

그래도 힘내야지, 너희가 있잖아

몸과 마음의 상처는 갈수록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 여기에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서러움이 더해진다. 양곤성 교사가 <선생님도 아프다>라는 책을 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료 교사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당신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라는 위로와 공감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겪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학생은 선생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인 동시에, 가장 잘 듣는 약이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생이 할런 상처 대부분은 오래 가지 못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책상과 의자처럼 교실 안에 늘 함께한다. 양곤성 교사도 교사로 살며 무수히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스스로를 돌보고 학생들에게 용기를 얻음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제 변화를 알아채더라고요. 그리고는 아프지 말라고, 저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사랑받기 위한 행동을 해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고요.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존재구나’라고 느끼는 것으로 자존감이 회복되죠. 결국 제 자존감을 회복해주는 약은 제 자신과 아이들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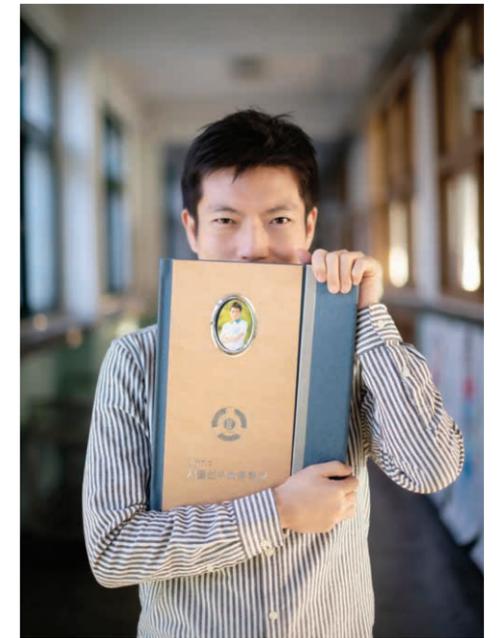
양곤성 교사는 지금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방적 존경보다는 상호 존중을, 훈계보다는 경청을 실천하는 선생님을 보고 자랐기에, 훗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자연스레 교사에 대한 인식도 교권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행히 행정 인력 확충, 교사 심리 상담 등 교사들을 위한 지원이 점차 늘고 있다. 다만 교권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아픈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힘을 기르는 일은 교사 자신의 몫이다.

주저앉지 말고 함께 가자, 마음아

“본인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나아질 수 있어요. 하루 몇 시간을 자야 피곤하지 않은지, 모임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과로와 불규칙적 식사로 내 몸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알고 자신을 챙겨야죠.”

실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높은 우울감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내리는 우선적 처방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 식사 그리고 운동이라고 한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애를 회복할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사들도 스스로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면 일상에 숨어 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행복에 대해 거창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거창한 무언가를 좇지 말고 학생과 서로 마주 보고 웃고 대화를 나누는 작은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행복에 대해 거창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거창한 무언가를 좇지 말고 학생과 서로 마주 보고 웃고 대화를 나누는 작은 일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즐거워 콧노래를 흥얼거리본 게 언제였을까. 문을 열기 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가슴을 꼭 누르는 버릇이 생긴 건 또 언제부터일까. 아파하는 동료 교사를 보고도 ‘괜찮아지겠지’ ‘다 똑같지’ 하고 쉽게 외면하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이제 ‘주목’하고 스스로를 바라봐야 할 때다. 우리는 아픔을 너무 숨기지도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서로 알고 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픔을 숨기고 있는지 말이다. 그러니 함께 힘내야 한다, 우리는.



우리엔 드라마보다 아름다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했습니다. 글 정수화·은수정 사진 한상무

우리의 기적

변정훈 서울 여명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그가 말한 ‘기적’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다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모든 날이 반짝이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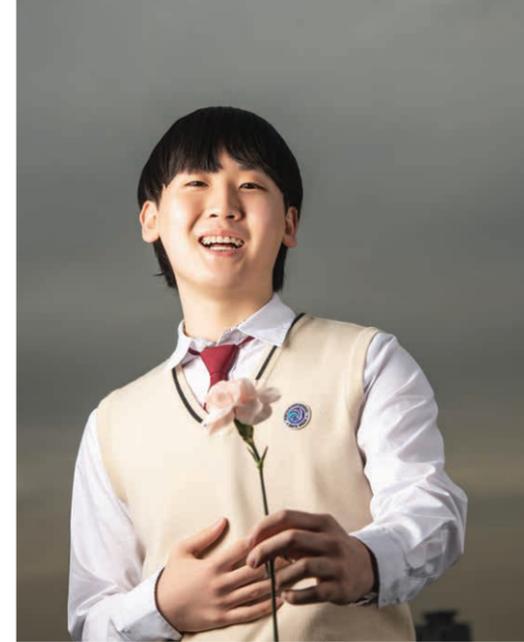
서울 남산 자락 아래, 함께 있을 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이 모였다. 바로 변정훈 교사, 여명학교와 함께. 여명학교는 2004년 북한 이탈 청소년과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로 시작해 2010년 서울시 유일 교육청 학력 인가를 인정받은 학교다.

과거 배운 것이 다르고 상처도 크지만, 여명학교는 아이들이 이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북한의 통제 아래 살던 아이들을 위해 자율성을 존중한다. 대신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한다. 학교의 규칙은 열려 있다. 두발 자유는 물론 염색도 상관없다. 복장도 자유로워 아이들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내세운다. 그러나 교복을 입은 타 학교 학생을 볼 땐 부럽기도 하다. 변정훈 교사가 ‘스승의 날 이벤트’를 아이들을 위해 신청한 것도 그런 이유다.

아이들은 처음 입어본 교복에 내심 어색해했지만 금방 적응해 연신 셀카를 찍기 바쁘다. 이 모습을 본 변정훈 교사의 얼굴에는 흐뭇함이 깃든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기 힘든 이벤트였다. 졸업하기 전 좋은 선물을 해준 것 같아 벅찬 감정을 웃음으로 채운다.

“워낙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라 어떨 땐 저조차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으면 그것만으로도 기쁘죠. 졸업한 아이들이 그래왔듯,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 엄마 아빠가 된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할 거예요. 아이들로 인해 오히려 제가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변정훈 교사는 아이들과 또 다른 추억을 만든다. 늘 그래왔듯 함박 웃으며 말이다.



“우리 쌤은 대단하신 분이예요.
딱 1년만 쌤과 열심히 해보자는 말에,
그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쌤! 저 약속 지키고 있는 거 맞죠?”

“광현이, 민준이, 해군이, 혁이, 미나, 지영이,
수정이, 명양이, 정봉이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반 내 새끼들, 너희가 바로 꽃이자 열매다.
사랑한다.”

“변정훈 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어찌면
큰 고민일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중요한 고민은 아닐 거라고.
그런 말씀으로 에너지를 주시며 힘낼 수 있게 잘 챙겨주셨어요.
쌤이랑 우리 반 친구들이랑 함께 고3 생활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고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푸른 교정, 아름다운 우리

정병익 부산 동래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 선생님과 학우들



일요일에도 부산 동래고 교실은 소란스럽다. 바로 동래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 학생들의 출석 수업이 있는 날. 1년에 스물네 번의 만남, 만날 기회가 적기에 더욱 소중하다. 여기에 모인 학생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지녔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몸이 불편해도 만학의 꿈을 가지신 분들, 프로 골퍼를 꿈꾸는 옛된 청년까지 서로를 넘나드는 나이와 그보다 더 다채로운 사람들이 한 교실에서 만난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 방송통신고 학생 중 최고령으로 기록될 1932년생 학생이 함께한다. 푸르고 아름다운 교정에 이들이 모인 이유다.

때를 놓쳐 하지 못한 공부는 한이 되었다. 특히 87세에 입학한 류광석 학생에겐 더욱이 말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기로 좋은 수업을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피난 생활로 살기에 바빴거든요. 당시에는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늦게나마 공부할 기회를 얻어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교복을 입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학우들은 옛 교복을 입자 천진난만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어린 시절 또래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내심 부러웠던 기억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주신 정병익 선생님. 덕분에 설레고 기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오는 날이 너무 즐겁습니다.
첫 만남은 서먹했지만, 진학의 꿈이라는 공통 목표로 학우들과 하나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을 함께한 정병익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을 위해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려고 애쓰시는 정병익 선생님,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별,
우리의 레전드
큰언니를 위한
캐릭터이슈콘

마리 퀴리는 말했다. "가족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 그녀의 말처럼 가족의 연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낸 네 자매가 있다. 어쩌면 5월을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말하며, 평소에는 꺼내지 못한 말을 카네이션에 담아 전하는 그들. 교단이 아닌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네 자매의 첫 동행을 위해 경북 포항으로 떠났다. 글강나은·정수희 사진 한상무

태안 시목초 교사
최희정

대전중원초 교장
최희영

서산 가사초 교감
최은경

서산 서령초 교장
최희경



우상이자 영웅인 우리의 큰언니

‘스승의 날’이 되면 네 자매는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15년 스승의 날에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었고, 공주교육대는 입학식에 네 자매의 어머니를 모셔 감사패를 전달했다. 네 자매 모두가 교육자로서 임했기 때문이다.

네 자매가 모두 교사가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생물 교사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첫째 최희경 서산 서령초 교장은 이제 막 교직에 들어선 새내기 교사였다. 아버지의 부재로 가세가 더욱 기울자 큰언니는 공주에서 유학 중인 세 여동생의 뒷바라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교대는 2년제로, 졸업 후 바로 발령이 날 수 있었기에 똑똑했던 동생들도 교사의 길을 준비했다. 큰언니는 병설 유치원 교사였던 어머니와 함께 월급의 전부는 물론 여가 시간마저 희생해야 했다.

“당시에는 교사가 과외수업과 유치원 교사 겸임이 가능했어요. 큰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 가기 전 새벽과 퇴근 후, 주말에도 일을 했죠.



3년간 유치원 교사도 했고요.”

둘째 최은경 서산 가사초 교장과 셋째 최희영 대전중원초 교장은 큰언니가 가장이나 다름없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엄마는 저와 넷째가 학기 중에 집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차비라도 줄이려는 줄 알았는데, 큰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공부하기 힘들어할까 봐 그러셨더라고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큰언니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한 것도 고마움에서였다. 그동안 네 자매는 여유가 없어, 결혼 후에는 각자 자녀를 키우느라 넷이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네 자매가 오롯이 떠나는 첫 여행, 이 여행은 세 동생의 우상이자 영웅인 큰언니를 위한 정년퇴직 선물이었다.

나무보다 단단한 ‘서로’의 힘

포항은 다른 여행지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바로 ‘벽차오르는 감격’이다. 호미곶 위로 붉고 뜨겁게 떠오르는 태양이, 거대한 모습으로 물을 뿜는 고래가 그렇다. 이곳에 첫발을 내딛은 네 자매 역시 벽차오르는 풍경을 마주했다. 구룡포해수욕장에 들어서자 파도가 들이칠 것처럼 넘실댔다. 동시에 벽찬 감격을 느끼며 가슴을 어루만졌다. 어릴 때부터 유독 우애가 좋았던 자매들은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몇십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우애가 좋으려면 서로의 생활이 비슷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해안 덕분일까. 어느새 교사로서 30년을 훌쩍 넘긴 동안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서로가 있기에 네 자매는 긴 시간 외롭지 않게 교단에 설 수 있었다.

“운동회 무용을 구상해야 하는데, 큰언니가 대표로 천안까지 가서 강습회를 듣고 왔어요. 저희는 언니가 알려준 안무를 연습했지요.”

“교육 활동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은 학년을 지도하면 언니들이 ‘이번 과학 실험은 조심히 해야겠다’라고 미리 조언도 해주니까요.”



새로운 출발선에 선 큰언니를 위해 세 동생은 다짐한다. 오래전 큰언니가 우리를 위해 무조건 지원을 해줬듯 이제는 큰언니의 새 출발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늘 지금까지, 우리의 영원한 레전드를 위해.

언니들에게 도움을 받은 동생들은 각자의 재능을 통해 이를 보답했다. 셋째 최희영 교장은 강의에 소질이 있고, 넷째 최희정 태안 시목초 교사는 글짓기에 뛰어나다.

“셋째는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예요. 교육과정 등을 신규 교사에게 가르치고 있어 교사 교육과 관련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넷째는 글솜씨가 매우 좋아요. 독서지도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 글을 다듬어달라고 부탁하곤 하죠.”

첫째 최희경 교장은 동생들이 자랑스러워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

보기만 해도 벽차오르는 바다에 누워

셋째 최희영 교장은 평소 정이 많아 언니 동생을 살뜰히 챙긴다. 이번 여행을 위해 직접 염색한 스카프를 챙겨 와 목에 하나씩 둘러주었다. 세상에서 네 개밖에 없는 은은한 색감의 스카프는 네 자매를 모델로 만들어주었다. 아직은 조금 차가운 바다지만 오랜만에 옷이 젖어도 머리가 헝클어져도 상관없이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는다. 바닷물과 솔래잡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했다.

“서산에도 바다가 있지만 누워본 적은 없어요. 바다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니 사뭇 다르더라고요. 등에 닿은 모래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바닷가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본 것은 둘째 최은경 교장뿐이 아니다. 물 공포증이 있어 목욕탕도 못가는 셋째 최희영 교장, 넷이였기에 물에 발을 담가보는 등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다른 이와 왔어도 바다의 푸름을 반짝이는 햇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을까. 네 자매는 눈을 마주하고 환하게 웃으며 이 행복을 마음껏 즐겼다.

‘아름다운 동행’은 많은 것이 처음인 여행이었다. 네 자매가 함께 떠난 첫 여행이자, 셋째 최희영 교장을 제외한 세 자매가 포항을 밟아본 것도 처음이었다. 또 하나, 대계를 맞본 것도 처음이었다. 바다냄새를 느끼며 맛본 박달대게는 살이 부드럽고 고소해 모두의 입에 잘 맞았다. 그렇게 네 자매의 첫 여행 밤이 지나고 있었다.

네 송이의 카네이션을 위해

일찍 일어난 첫째 최희경 교장과 둘째 최은경 교장은 숙소의 커튼을 젖혔다. 커튼을 열자마자 막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떠오른 붉은 해와 빛으로 가득한 영일대가 눈에 들어왔다. 자매에게는 잊지 못할 일출이었다. “신기하게도 해가 뜨는 곳에 정확히 영일대 전망대가 있었어요. 순간을 놓칠세라 사진을 찍었죠.” 어느덧 1박 2일 여행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에 들른 네 자매, 이곳에서 동생들은 큰언니를 위한 카네이션을 준비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다 큰 동생들이 카네이션을 건넸다. 첫째 최희경 교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걸리며 진심 어린 말이 이어졌다. “나는 큰언니니까 아빠,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당연히 동생들에게 준다고만 생각했지 그 시간이 힘들다곤 생각 안 했어.” 큰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세 동생의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가 대학을 가고 교사가 될 수 있던 것은 언니의 희생 덕분이었어. 그런데 항상 생각은 해도 살면서 고마움을 매일 표현하기는 어렵잖아. 이번 기회에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세 동생에게 큰언니는 살아 있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자 아버지였으며, 때로는 다정한 친구이자 큰 산보다 우직한 우상이었다. 그런 언니가 올해 여름, 교직을 떠난다.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지만 경직된 직업이기도 해요. 그동안 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동적으로 살고 싶어요. 계획 없이 지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퇴 이후의 삶을 꿈꾸는 큰언니의 앞날을 넷째 최희정 교사가 축복했다. “마라톤 거리가 총 42.195km잖아요. 우리가 퇴직할 때면 대략 42년 근무한 셈이니 1년에 1km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마라톤 하듯 페이스 조절을 했으니 큰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결승점까지 잘 달려온 셈이잖아요. 마라톤이 끝나면 큰언니만의 삶을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출발선에 선 큰언니를 위해 세 동생은 다짐한다. 오래전 큰언니가 우리를 위해 무조건 지원을 해줬듯 이제는 큰언니의 새 출발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늘 지금처럼, 우리의 영원한 레전드를 위해.

네 자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구룡포해수욕장

신라 진흥왕 시기, 장기현감이 하늘에서 천둥과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바다에서 아홉 마리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뒤 구룡포로 불리기 시작했다.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경관이 수려하고 영일만 해돋이와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즐거움이 공존한다.
 ① 남구룡포읍
 ② 054-275-9405

광일회식당

구룡포 주변으로 횡집과 대게집이 즐비하지만 이곳은 구룡포 주민들이 자주 찾는 숨은 맛집이다. 과메기, 고래고기, 대게탕, 대게찜, 회, 회덮밥 등 지역 특색이 물씬 나는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주메뉴는 역시 회와 대게로 모듬회를 주문하면 한상 차림으로 낸다.
 ① 남구룡포읍 호미로 304
 ② 054-276-2957

영일대전망대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영일만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지은 국내 최초의 해상 누각.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자리해, 바다 위 다리를 건너는 기분이 묘하다. 전망대에 오르면 영일만 일대와 포스코, 두호항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① 북구 해안로 173
 ② 054-270-2114 (영일대해수욕장)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된 뒤 일본인들이 어업, 선박업, 통조림 공장을 하며 거주지를 형성한 곳. 당시 요릿집과 찻집 등 80여 채의 일본식 가옥이 남아 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구룡 조형물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충혼탑이 있고 구룡포항이 한눈에 들어온다.
 ① 남구룡포읍 구룡포길 153-1
 ② 054-276-9605

|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넷째
최희정 태안 시목초 교사

이번 여행이 큰언니가 중심이어서 더 인상 깊었어요. 특히 큰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순간 언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그때 저희 동생들도 너무 몽클했죠.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5월호가 나오면 엄마에게도 꼭 보여드리면서 우리 네 자매 이렇게 행복했다고 얘기할게요.

셋째
최희영 대전중원초 교장

세상에 우리 큰언니 같은 언니는 없다고 꼭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큰언니도 대학 다닐 때, 첫 월급을 탔을 때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았겠죠. 그런데 동생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 시간으로 전부 보답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여행이 큰언니에게 행복한 여행, 쉼표가 되는 여행이 되어 다행이에요.

둘째
최은경 서산 가사초 교장

평소라면 학교에 있을 텐데 낯선 곳인 포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선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준 언니와 동생들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또한 우리 네 자매가 함께할 수 있게 이 시간을 만들어준 <The-K 매거진>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첫째
최희경 서산 서령초 교장

어떻게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함이 제일 커요. 40여 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는 것에 기쁘기도 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한 설렘도, 두려움도 있어요. 이 시점에 동생들과의 여행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 정말 뜻깊었어요.

꿈이 있으면 행복하고,
꿈 너머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베트남 하노이

동경은 평생의 꿈을 이룰지 모른다

벌써 20년 전이다. 1999년 처음으로 인도차이나반도를 돌면서 아름다운 하노이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긴 생머리를 한 여학생들이 입고 있던 하얀색 아오자이가 인상에 남았다. 그 후 나는 분주한 일상을 보내느라 하노이를 기억 뒤편에 묻어두고 지냈다. 그러다 다시 베트남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북베트남의 사파(Sapa)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다. 20년 전 베트남을 기억하며 주요 도시를 두루두

교사는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교사들은 어떤 꿈을 꿀까. 그렇다면 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꿈 많던 나는 대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럽,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여러 대륙의 많은 국가를 배낭 하나 메고 돌아보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운명이었을까. 베트남 하노이로 떠나게 되었다. 글·사진 유효정(부천상록학교 교사)

루 살피기도 했다. 물론 하노이는 눈을 감고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두 발 답사를 한 곳이기도 하다.

문득 생각이 났다. 꿈 많던 시절, 해외 파견교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나. 하지만 아내이자 딸, 동생 등의 역할도 중요해 지원서 한 번 넣지 못했다. 간절히 원하는 꿈이었지만 가족의 행복한 삶 또한 내게는 중요했다. 아마도 많은 교사가 나처럼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어느 날 교원해외파견 모집 공고를 봤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금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았다. 그렇게 원서를 제출했다. 아오자이를 동경하며 그리던 평생의 꿈이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실현되는 것 같았다.

꿈과 현실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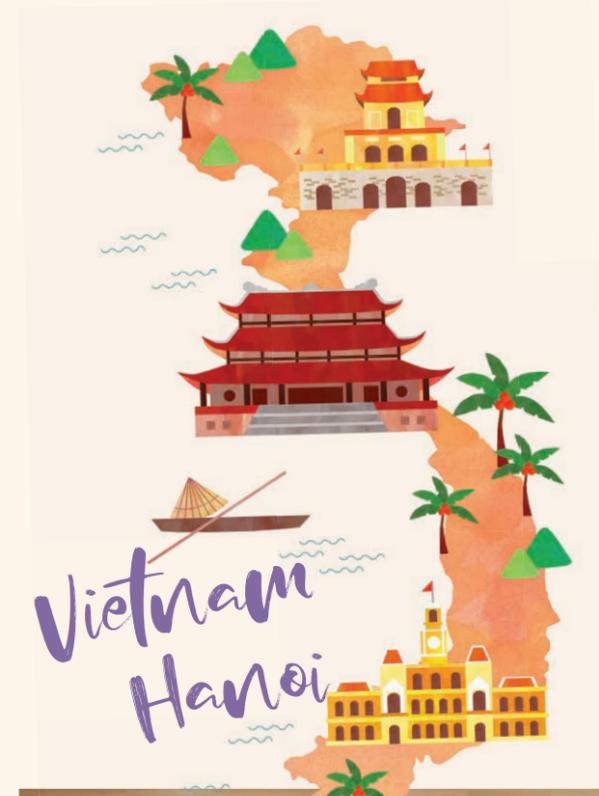
낭만적인 꿈을 안고 하노이에 발을 디뎠다. 지난해 겨울, 한국에서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 채용된 교사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서 예비 초빙 교사들은 꿈 보따리를 풀었다. 나 역시 교사로서 하노이에서 펼칠 꿈을 그리고는 기대에 벅차 가슴이 설렘했다. 하지만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우리가 입성하기 몇 달 전보다 학생수가 200여 명 더 늘어 있었다. 각 학급은 36명 이상의 학생으로 붐볐고, 초·중·고가 한데 뒤엉켜 무려 2000명이 넘는 학생이 쉬는 시간마다 물결처럼 움직였다.

특수교사인 나는 특수학급을 맡고 있어 비교적 나은 편이었지만 그마저도 초등 3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 무려 6개 학년에 걸쳐 7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했다. 게다가 학교 운영 시스템은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수기 공문을 꾸려 결재판을 들고 1층과 5층을 오가야 했다. 등·하교 시 스쿨버스 시간에 맞춰 8교시까지 수업을 했다. 한마디로 엉덩이 붙일 새가 없을 정도였다.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면서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꿈에 부풀었던 기대는 사라지고 허탈감이 밀려왔다.

소소한 언어 장벽

특수 보조원으로 베트남인을 채용했다. 한국인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적은 임금 탓에 특수 보조원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베트남 사람들은 영어는 못 해도 한국말은 조금씩 할 줄 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생기는 소소한 언어 장벽이 있다.

특수 학급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다. 베트남인 특수 보조원 튀이에게 “7교시는 항상 원반 수업입니다. 3학년 교실로 데리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예, 알겠어요”라고 대답한 튀이는 그다음 날 7교시에 학생을 데리고 어디론가 나갔다. 3일째 되는 날, 우연히 통합 학급 교사를 만났는데, 그는 내게 특수 학생이 왜 7교시에 오지 않는지 물었다.





도대체 튀이는 7교시마다 학생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걸까. 나중에 물어보니 원반 수업에 들어가라는 말을 산책하라는 말로 알아듣고 매번 산책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베트남 특유 느낌의 미학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선배 교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빨리 끝내놓고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있던 나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왜 천천히 하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어떤 일을 제 시간에 끝내려면 내가 직접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 스타일'로 일해야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 한국 스타일로 일할 수 있는 베트남 사람은 드물다. 만약 베트남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두 배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시간을 분초 단위로 생각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시간을 일 단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오늘 꼭 오세요"라고 받아들인다.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계획한 시간에 끝내지 못한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한다.

되는 것도 없는데, 안 되는 것도 없다

하노이에 와서 처음 몇 주는 말 그대로 되는 것이 없는 나날이었다. 내가 하고자 한 모든 것이 마치 미세먼지 자욱한 하노이의 공기처럼 뿌옇게 흐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일이 어설피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난타만 해도 그렇다. 북을 구하려고 했는데 하노이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했다. 그러다 우연히 예전에 학교에서 난타 북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창고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제보도 받았다. 찾아보니 비록 내가 원하는 크기의 북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것이 있었다. 음악 선생님이 난타 채 대신 드럼 채를 주셨다. 하지만 굵기와 크기부터 다른 드럼 채로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사물놀이 담당 선생님이 쓰지 않는 북채가 있다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한국에서 공수해 온 것이었다. 물론 한국에 배달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종종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신호도 없는 도로를 오토바이와 차들이 나름 조화를 이뤄 움직이는 것을 보면 베트남은 마냥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다.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처럼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파견 교사 면접을 준비하면서 '만약 면접에서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으면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절대 후회할 거야'라고 생각했다. 나아말로 오지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와는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온 교사들이 엄청난 기량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꼭 뽑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아마도 베트남의 뒤쳐진 시스템을 교사들의 역량으로 채우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역량이 뛰어나야만 행복한 하노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듯하다. 일부 교사는 한국에서처럼 학교와 집만 오가지만 나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정신으로 조금씩 베트남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다.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사기도 하고 옷 수선을 맡기기도 한다.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처럼 정글에서는 정글의 법칙을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 베트남의 법칙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베트남 적응법이 아닐까.

오늘도 꿈 너머 꿈을 위해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 들어서는 그 순간 다시 신규 교사가 되었다. 그동안의 경력이 무색하게도 동분서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모든 일이 서툴다. 특히 지역사회가 바탕인 베트남에서 한국 장애 학생들의 졸업 후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진다. 물론



내가 꿈꿔온 생활은 아니다. 그러나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이 루고자 한 교육에 대한 초심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 초심을 느리지만 하나씩 이뤄가다 보면 머지않아 꿈 너머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유효정 부천상록학교 교사
매일매일 여행하는 '따라쫓자'. 현재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다. 장애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더 나아가 베트남 사회에 당당히 설 수 있게 교육하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장애 학생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초석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가상현실이 우리의 진짜 수명을 늘린다고?

VR 시대의 의료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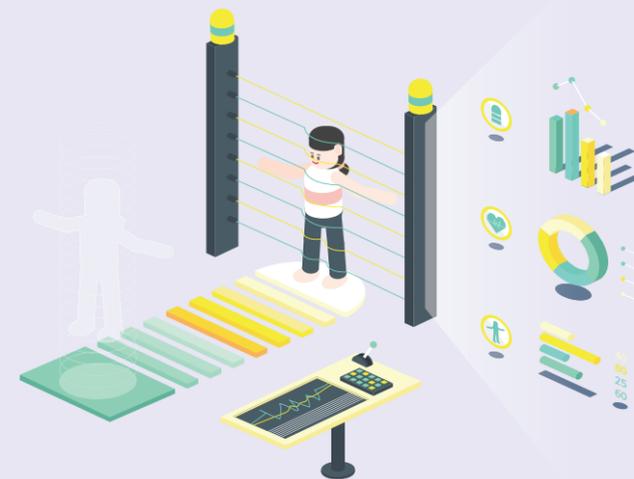
VR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인공적 감각을 만들어내 진짜 같은 가상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기술이다. 지난 2016년은 '가상 현실의 원년'이라고 불린다. 그해 국제가전박람회 CES의 핵심 테마가 VR이었는데 삼성전자, 소니, 오쿨러스 VR, HTC 등 48개 업체가 부스를 선보였고, 미항공우주국(NASA)까지 가세했다. 현재 VR 기기의 중심은 기어VR, HTC 바이브, 오쿨러스 리프트 등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로, 우리 감각을 현혹해 수백 미터의 비랑 위나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여기에 360도 입체 음향,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4D 의자 등의 기술이 결합했고, 첨단 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 VR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인천 계양구에 국내 최초의 '심장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심장은 인체 곳곳에 피를 공급하는 엔진, 잠시 멈

추기만 해도 우리는 치명적 상황에 처한다. 그런데 그 심장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심장박물관의 VR 기기를 착용하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마치 영화 <이너 스페이스>처럼 심장 내부로 들어가 혈관 곳곳을 탐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BS도 심장의 생김새, 혈관의 모양과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VR 모바일 앱 '티라노의 심장 대탐험'을 선보였다.

VR은 단순한 인체 탐험 학습만이 아니라 실제 치료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의 연구는 이미 20년 역사를 넘어섰는데, 처음에는 참전 군인들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치료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과거 전쟁에서 겪은 환경을 재현하면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 정신의학과 마이클 데이비스 박사는 2008년경부터 고소공포증 환자에게 고층 빌딩을 오르내



리는 영상을 보여주며 보조 약물을 주입하는 실험을 해왔다. 이를 통해 과거 기억이 현재의 편안한 기억으로 대체돼 공포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VR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통제해 재현하기 때문에 폐쇄공포증, 비행공포증 등의 심리 치료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학 드라마 <하우스>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가상 수술 상황을 설명하면, 입체 화면이 그 과정을 눈앞에 보여주고 때론 그 수술이 실패하는 상황까지 보여준다. 만약 이런 시뮬레이션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VR은 의료 실습 분야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실제 해부학 실습, 수술 참관은 예산과 시간 문제로 의대생들조차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VR을 활용하면 선배 의사가 집도하는 과정을 살아 있는 장기를 보는 것과 흡사하게 관찰할 수 있다. 해부학 실습도 여러 차례 반복 시도할 수 있다.

최근 CNET는 촉각적 피드백이 더해진 가상 수술 훈련 기기인 '펀더멘탈 VR'을 소개했다. 실습생은 VR 헤드셋과 햅틱 기기로 구성된 장비를 사용하는데, 무릎 수술을 위해 뼈 속을 드릴로 뚫는 상황을 촉각으로 생생히 느낄 수 있다. 합병증, 출혈 등 돌발 상황까지 시뮬레이션해 실제 수술을 할 때 당황할 가능성도 줄인다. 과거에는 실험용 시신을 구해 실습을 해야 했는데, 법적 절차도 까다롭고 보관, 관리,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치르는 비용도 만만찮았다.

"당신은 지금 당장 화성으로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비싼 우주항공권을 끊거나 혹독한 적응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눈과 귀에 VR 기계를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영화 <토탈 리콜>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회사를 통해 화성 여행을 꿈꾼다. 아직 영화처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VR이 펼치는 환상은 이미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왔다. 가상의 놀이동산, 번지점프, 비행 시뮬레이션에 이어 더욱 기쁜 소식이 있다. 이제 VR이 의사를 도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VR 의료 실습 시스템으로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백내장 수술 훈련 솔루션 등 VR 기반의 수술 훈련 시뮬레이터를 개발 중이다.

VR 의료 기술의 다음 단계는 원격 수술과 로봇 기기의 결합이다. 지난 4월 3일, 중국 광둥성의 한 병원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아온 41세 여성 환자가 수술을 마쳤다. 그런데 이 수술은 400km 떨어진 광저우의 광둥인민병원 의료진이 VR을 통해 원격 가이드를 제공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들은 VR로 전해지는 심장 수술 상황을 보며,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절개 부위를 3cm 올리라는 지시를 전하기도 했다.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면 방사선 피폭 등 위험이 존재하는 환경에 로봇의사를 파견해 VR로 수술을 집도하는 것도 실현 가능하다.

"이제 편안히 자리에 누우세요. 당신은 이 치료를 받은 후 몸이 어떻게 될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듣고 느낄지 미리 체험할 것입니다." VR은 지루한 치매 재활 치료에 게임 같은 재미를 더할 수 있고, 불안해하는 산모에게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줄 수도 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삼성 등의 글로벌 IT 기업은 물론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병원, 한림대 의료원 등이 VR 분야에 적극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강현실(AR)과 결합한 의료 정보 제공, 5G와 결합한 원격 의료 등 다른 기술과의 콜라보레이션도 기대된다. 가상의 리얼리티를 통해 우리의 진짜 삶이 안전하게 개선될 시대가 왔다.

타이베이, Taipei 지극한 마음의 도시로

공항 대기시간을 더해도 만나절이면 도착하는 대만 타이베이는 역사와 예술에 흠뻑 취한 사람에게도, 온천과 휴양을 즐기는 이에게도, 도시 관광이나 맛 기행을 좇는 여행자에게도 상당한 만족을 준다. 또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신을 찾는 사람에게도 이 만족은 유효하다.

글 양정훈(여행작가) 사진 양정훈 외





대만의 여름은 피해왔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고온 다습한 기후 덕에 건물과 골목 담벼락을 화첩 삼아 담쟁이 넝쿨은 쉬지 않고 초록 세상을 그린다. 타이베이(Taipei)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 많은 도시. 그런데 그만큼 녹음(綠陰)도 깊어, 돌아보면 회색이었을까 녹색이었을까 헛갈리는 곳. 서울과 닮은 구석이 있어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지 싶다가도 이내 다른 풍경과 다른 이야기가 안겨 든다.

타이베이의 시간

대만은 작지만 복잡복잡 인구가 과밀한 국가다. 한국 영토의 약 30% 면적에 인구는 절반 정도. ‘대만의 북쪽 땅’이라는 뜻의 수도 타이베이에는 300여만 명이 살고 있다. 타이베이 역사는 아시아의 다른 유서 깊은 도시와 비교할 때 그리 오래된 편은 아니다. 자료에 의하면 1600년대 후반 마을이 처음 형성됐고, 1870년대 후반이 되어 본격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도시 모습을 갖췄다.

그런데 타이베이 도심을 걷다 보면 이상하게 그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품은 다른 도시보다 이곳 건물이 더 오래된 듯한 인상을 받는다. 변화가도 마찬가지. 50년, 100년 쯤 혹은 그 이상 된 것처럼 보이는 건물은 페인트가 다 벗겨진 채 대로변에 서 있고, 곧 허물어질 것 같은 시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혹시 너무 못 살아 그런가? 아니다. 2001년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19년’이라는 경제 침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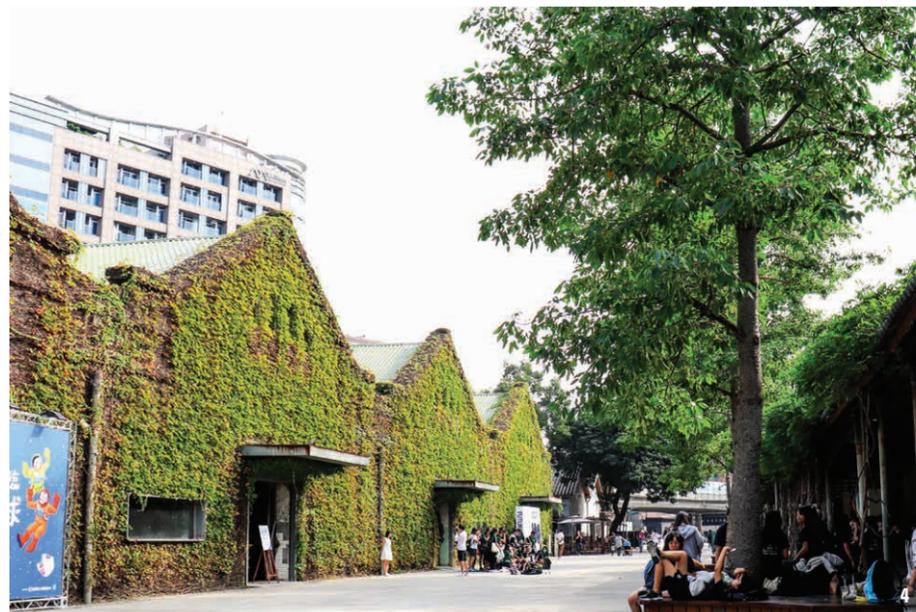
1. 대만 타이베이는 도시 관광 뿐 아니라 온천과 휴식을 찾는 여행자에게도 인기 많은 도시다.
2. 대로 한복판에서도 어렵지 않게 허름한 외관의 건물을 만날 수 있다.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타이베이의 역사 문화와 관련이 깊다.
3. 워낙 방문객과 신도, 관광객이 많은 덕에 향로만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4. 양조장이었던 화산1914는 이제 타이베이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 되었다.
5. 화산1914에서 추억을 쌓는 사람들.



를 겪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000달러 이상이다. 낡은 도시의 정경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대만인의 성향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대만 사람들이 외관이나 외모보다는 내실을 더욱 중시하고, 또 옛것을 함부로 헐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이 도시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화산1914의 탄생

대만은 50여 년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강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치열했던 근대기 이후, 한국과 대만의 선택은 조금 달랐다. 한국은 하루빨리 일본 문화의 잔재를 허물고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자 한 반면, 대만은 일본의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도시 재생의 바탕으로 삼는 정책을 택한 것이다. 현재 대만에 있는 일본 혹은 일본식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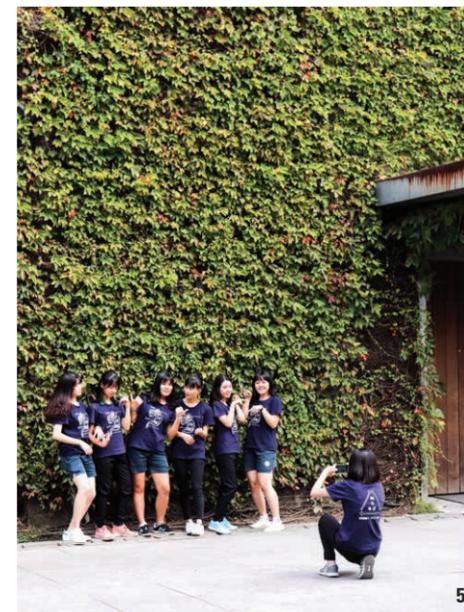


화재와 건물은 그대로 남아 새로운 이름과 기능을 부여 받았다. 그중 ‘화산1914(華山1914文化創意產業園區)’는 청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돈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만든 대만 최대 양조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대대적인 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실제로 화산1914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전형적인 일본식 건축, 오래된 건물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내부는 사뭇 다르다. 작지만 트렌디한 아트숍, 극장과 전시관, 공연장과 미술관, 수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양조장이라는 특성을 살려 언제나 맞춤형 공간으로 새 콘텐츠에 맞춰 구성과 인테리어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어찌 보면 역사의 치욕일 수 있는 과거. 그러나 그 시대를 건너온 건물은 이제 시민과 예술가를 위한 문화 공간이 되었다.

쫓고 쫓기는 사람들

천천히 예술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정성껏 만들어 전시한 수공예품을 구경하노라면 만나절이 금세 지나간다. 화산1914의 많은 영역을 다양한 타이베이 예술가와 공예



가, 디자이너가 영감과 꿈으로 채우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환영받은 건 아니다. 양조장을 폐업한 이후 여기에 빈 공장만 남아 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그 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다. 인구 과밀로 늘 북적이는 타이베이에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공간을 모색하던 예술가들에게 이 공장이 눈에 들어온 건 당연한 일. 그들은 무단으로 폐양조장에 들어가 공간을 꾸미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청 관계자들로서는 예술가들의 이런 움직임이 반가울 리 없었다. 불법 침입에다 무슨 범죄가 생길지 모를 일. 타이베이는 예술가들을 공장에서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고, 새로운 공간에서 한창 예술혼을 불태우던 이들은 온몸으로 저항했다. 계속된 충돌과 격론. 시간이 지나서야 마침내 예술가들과 당국은 합의를 통해 이 지역을 문화 예술의 거점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오늘날 화산1914는 탄생했다. 이런 서사를 보고 있으면 예술이란 얼마나 놀라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지. 이렇게 바뀌어야겠다. 아마도 이 빛나는 변화를 이룬 것은 예술 그 자체라기보다 서로를 묶어 연대한 예술인들의 힘과 정신이 아니었겠냐고.



6

도심 속 사찰의 정체

타이베이 시내 한복판 룡산스역에는 대만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사찰 용산사(龍山寺)가 있다. 일본식 건물이 넘치는 타이베이에서 전통을 계승한 건축양식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일주문 지붕에 발을 디딘 용이 주변의 높은 회색 빌딩 사이를 뚫고 하늘로 오르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비로운 느낌마저 든다. 용산사는 우여곡절이 많은 절이기도 하다. 1738년 완공됐으나 화재로 수차례 소실과 복원을 반복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약 60년 전에 비로소 현재 모습으로 재건했다.

한편, 이 사찰에는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전각(殿閣)에는 관음보살과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고(불교), 뒤편 전각에는 천상성모(중국 민간신앙)와 문창제군(도교)을 모시고 있다. 어라? 그 옆으로는 관성제군(유교)도 계시다. 전각마다 각기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앞 전각에서 아픈 사람의 회복을 빌고 있으면 종종 절 관계자가 다가와 ‘건강은 이분이 아니라 저분 담당’이라며 다른 전각을 알려준다. 이게 바

로 타이베이 사찰을 둘러볼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종교가 한 지붕 아래 모여 맞춤형으로 신도들을 만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사실 용산사는 대만의 대표적인 도교 사원이다). 도교, 불교, 유교, 토속신앙이 비빔밥인 듯 한정식인 듯 어우러져 있다. 참고로 대만 인구의 약 35%는 불교, 33%는 도교 신자다. 더 많은 신에게 맞춤형으로 소원을 빌면 더 잘 들어주시는 걸까. 아니면 종교를 구분 짓는 것보다 훨씬 의미 깊고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소원을 심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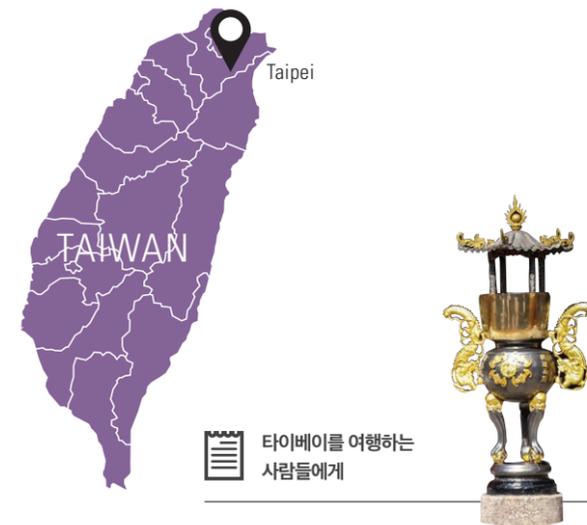
돌아 나가는 길. 허리가 굽어 잘 펴지지 않는 노인이 조심조심 향을 피우는 모습이 보였다. 몸짓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다. 향로에 불이 번진다. 향로가 불타오르면 신이 소원에 답하는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워낙 많은 사람이 향과 초를 공양하기 때문에 향로를 따로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놀랄 만큼 많은 신을 놀랄 만큼 많은 사람이 놀랄 만큼 구분 짓지 않고 믿는 도시. 시간이 한참 지나, 나는 우연히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타이베

이가 재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도시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서울은 3위). 영국 어느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타이베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1812억 달러에 달했다. 그제야 문득 이런 생각에 닿는다. 그래서일까. 혹시 그래서 그토록 많은 신이 필요했을까. 원고를 마무리하며 ‘관계’와 ‘존중’이라는 두 낱말을 적어 놓고 오래 들여다본다. 그러다 나는 ‘자신’이라는 전혀 다른 낱말에 도착했다. 화산1914를 짓고 이론 예술가와 용산사의 구도자들. 그들의 싸움과 염원과 기도는, 예술과 신을 향한 마음과 정성은 결국 지금을 더 충실히 살고, 자기를 더 충실히 만나려는 마음이었을까. 관계와 존중은 마치 타인을, 신을, 바깥을 향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6. 타이베이 대표 사찰인 용산사의 전경
7. 8. 유명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었던 자우편



7



타이베이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타이베이와 주변의 유명 지역을 여행할 때 택시 투어를 많이 이용합니다. 호텔 택시가 데리러 와 온종일 함께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시 호텔까지 배려해주는 등 가격도 좋고, 한국어가 유창한 택시 가이드도 많습니다. 다만 불법 업체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예류, 스펀, 진과스, 지우편 등의 지역을 가는데 많은 곳을 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바빠지죠.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여행한다면 세 곳 정도가 적당하지 싶습니다. 일정을 줄이면 여행은 조금 느려지고, 여행이 조금 느려지면 오래 깊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용산사는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 비교적 늦게까지 개방하고, 입장료는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붐비는 절인데, 혹시 사람이 북적이는 게 불편하다면 늦은 오후 넘어 방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8



기금운용수익 1조417억원 거양 수익률 4.1%... '민주적·수평적 의사결정' 주효 자산 34조6000억원·회원 79만6000명 달성

한국교직원공제회 2018년 결산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기금운용을 통해 1조417억원의 수익을 거양, 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당 기준이익은 2850억원으로 목표 대비 190%를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변동성이 컸던 세계경제, 국내외 증시 하락 등의 불안한 여건 속에서 주요 연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욱 주목할 만하다.

교직원공제회의 2018년 기금운용 자산 규모는 2017년 대비 1조1920억원 증가한 26조2097억원을 기록했다. 4%대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한 비결로는 우선 부동산, 인프라, PEF 등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14년 40% 내외에 머물던 대체투자자산과 기업금융 부문의 비중을 2018년 56.6%까지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 중학동 더케이타워 등 오피스 투자사업 매각차익, NPL 펀드 분배금 수취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부문에서는 17.2%라는 괄목할 만한 수익률을 실현했다. 투자 기회는 나날이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는 한층 치열해진 경쟁 환경에도 국내 인프라 민간 투자 사업을 비롯해 공제회가 장기간 구축한 국내외 기투자건으로부터 원활히 수취한 분배금이 양호한 수익의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투자 집행 시 이뤄지는 직원 간 민주적·수평적 의사결정과 다단계에 걸친 심층적 분석·검토 과정이 최근 5년간 평균 투자수익률 5.9%라는 장기간 지속적인 우수 실적의 근간이 됐다는 평가다. 공제회는 리스크

관리 및 투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3단계 심의 절차 통과 후 임원회를 거쳐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 중 투자실무협의회의 경우 투자 부서 전체 직원이 직급에 상관없이 '1/n' 표를 행사하는 등 외압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구조가 위기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진가를 발휘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공제회 총자산은 전년 대비 2조1520억원 증가한 34조6099억원, 그리고 회원 수는 2만6000여 명 늘어난 79만6501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조6270억원 증가한 28조8367억원의 기금을 운용해 4.7%의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했다. 투자 리스크 분산을 위해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전 부문에서의 해외 투자 비중 확대 추세를 지속,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확대한 43.6%의 기금을 해외 투자 부문에 배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의 경우 주거 패턴 변화와 e-커머스 성장 같은 트렌드에 대응해 멀티패밀리(임대주택), 물류 시설처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섹터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 집중해온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 위주의 투자 외에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신흥국, 특히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인프라 투자를 적극 검토,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제회 자산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대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1조196억원 증가한 6조61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중의 대여금리가 인상 기조였던 것에 반해 공제회가 회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여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한 가운데 보증보험을 이용한 대여한도를 확대해 회원대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회원의 결혼, 출산, 주택 마련, 최초 대여 시 연 2.99%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The-K복지누리대여대여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77.8% 증가한 7648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신규 투자 건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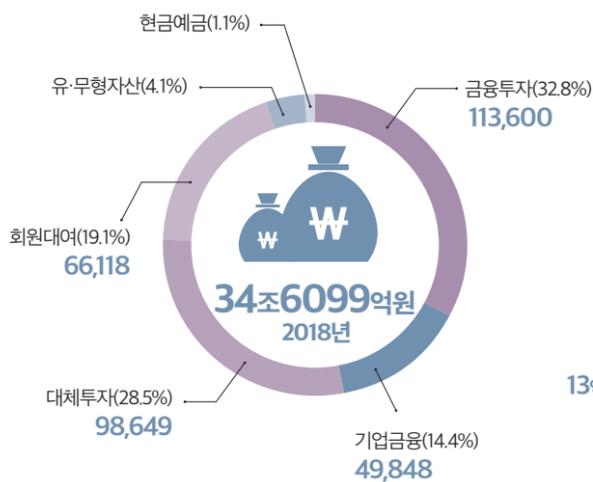
적 요구에 부합하는 회원복지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투자 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를 적극 고려하고, 우리 교육이 꿈꾸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않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제회 역시 앞으로도 국민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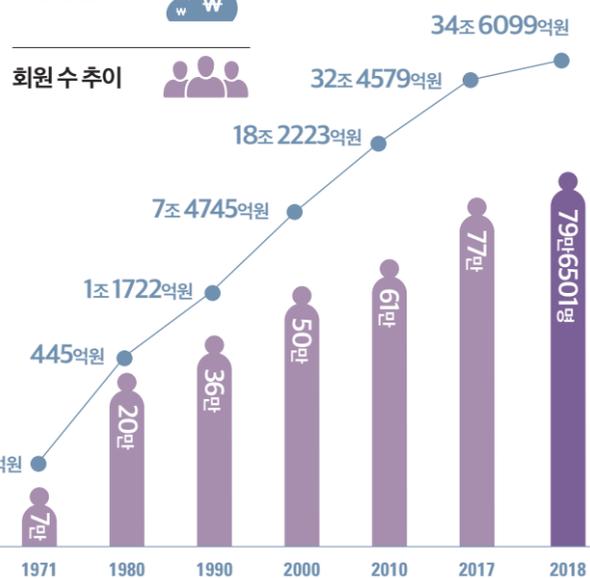
2018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사업 및 성과

- 2월** • 장애인 교원 교육보조기기 지원사업 첫 시행
- 3월** • 전사적 조직 개편(3실 10부 35팀) 단행
기금운용전략실, IT기획팀, 법무지원팀 신설
- The-K타워(서울 여의도) 개관
- 새로운 조직 문화 확립 위한 The-K way 선포
-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개최
- 5월** • 교직원라이프 '교직생활퍼펙트공제(1805)' 출시
-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 개최
- 7월** • 출산축하금 자녀 입양 시에도 지급
- 9월** • The-K복지누리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 시행
- 10월** •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제21대 이사장 취임
- 홈페이지 전면 개편, 모바일 접근성 강화
- 11월** • 제5회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 수상
- 교직원라이프 '마음건강보장공제(1811)' 출시
- 12월** • 소비자중심경영(CCM) 제4차 인증 획득

2018년도 자산 구성
(단위 : 원)



자산 변동 추이





갑상선암,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교직원의 주요 질병 관련 건강 정보를 매달 알아보세요!

교직원라이프 '건강 정보 & 이벤트' 홈페이지 오픈 인터넷에 건강이나 질병에 관한 정보는 차고 넘친다. 어떤 것을 가려내고 받아들여야 할지 외려 난감할 때가 많다. 지난 3월 한국교직원 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가 '건강 정보 & 이벤트' 홈페이지(www.ktcu.life.co.kr)를 오픈한 이유다. 교직원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은 질병 위주로 꼭 필요한 핵심 건강 정보만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다.

건강 정보 & 이벤트 홈페이지는 '3월 갑상선암' '4월 성대결절'처럼 매월 1회씩 새로운 질병을 주제로 선정한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건강 자가진단 △전문가 조언 △건강 상식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 코너를 마련해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건강 자가진단 코너에서는 10가지 내외의 간단한 문항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 질병의 증상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 테스트를 완료하면 전문가의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간에 알려진 질병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물론 추천 음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질병이 발병할 것을 걱정하는 이를 위해 적절한 보장 상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주제로 선정한 질병과 관련한 간단한 건강 상식 퀴즈를 풀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증정한다.

건강 정보 & 이벤트 홈페이지 속 정보를 얻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카카오픈플러스에서 친구를 맺는 것이다. 카카오픈플러스 친구로 등록 시 매월 초 새 주제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푸시 알림으로 알려준다.



<교직원라이프> 건강 정보&이벤트

5월의 질병 하지정맥류

장시간 서 있는 직업군에 잘 나타나 압박스타킹, 걷기, 다리 올리기 도움돼

교직원라이프 '건강 정보 & 이벤트' 홈페이지가 선정한 5월의 질병은 '하지정맥류'다. 하지정맥류란 정맥 내부에 있는 판막이 손상돼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역류함으로써 정맥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교사, 간호사, 스텝어디스, 상품 판매원 등 오랜 시간 서 있거나 택시 운전기사같이 오래 앉아 있는 직군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다. 예외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 하지정맥류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하지정맥류의 주요 증상으로는 열감, 통증, 부종, 근육 경련, 피로감 등이 있다. 또 장기간 다리가 높은 정맥압에 적응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하지정맥류가 심하지 않은 경우 증상 완화 또는 질병의 진행 속도를 지연할 목적으로 탄력붕대를 감거나 압박스타킹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리가 무겁거나 정맥류가 많이 튀어나온 경우, 또 하지부종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압박스타킹은 30mmHg 전후 압력을 주는 스타킹을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그 외에 체중 감량, 걷기 운동, 다리 들어 올리기 등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정맥류 대처하기

- ✔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앉아 하는 일을 피합니다.
- ✔ 피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시간마다 걸어 근육 펌프를 가동함으로써 하지의 깊은 정맥 압력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마라톤이나 달리기 보다는 비교적 혈액의 유입과 유출이 평형이 되게 하는 걷기 운동이 좋으며 하루 1~2시간, 거리상으로는 4~8km를 권합니다.
- ✔ 압박스타킹 사용을 생활화하면 정맥 혈류 속도를 올려 혈액이 정체되지 않기 때문에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잘 때 베개 등을 이용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 ✔ 청바지 등 몸에 딱 끼는 옷은 하지정맥류에 좋지 않습니다.
- ✔ 다리를 꼬고 앉을 경우 정맥 순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니 피합니다.
- ✔ 온탕이나 찜질방은 높은 온도로 정맥이 확장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 ✔ 복압 상승으로 정맥 환류 시 방해가 되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장거리 여행 중에는 발목과 발 운동을 하거나 발에서 먼 쪽부터 가까운 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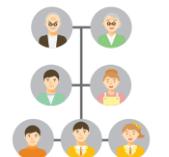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군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동일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직업군의 경우



임신부의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하지정맥류의 주요 증상



열감

통증

부종



근육 경련



피로감

하지정맥류의 증상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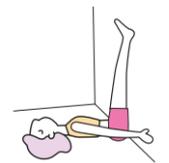


30mmHg 전후 압력을 주는 압박 스타킹

체중 감량



걷기 운동



다리 올리기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카르페디엠>

환희로 가득 찬
우리의 순간을 위해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올해도 변함없이 주최한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이 성대한 환호 속에서 열렸다.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린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은 어느새 교직원만의 전시가 아닌 명실상부 권위 있는 전시로 자리 잡았다. 카르페디엠(carpe diem),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전시는 과연 어떤 행복을 가져다줬을까.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글 이경희 사진 황원



예술이 주는 삶의 행복

피카소는 말했다. “예술은 일상의 먼지에 찌든 영혼을 깨끗이 해준다.” 붓을 잡은 손끝으로 물감을 찍거나, 종이를 오리는 술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일 테다. 어쩌면 예술을 감상하는 이들까지, 예술을 원하는 모두에게 전하는 셈이다.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이 열리는 날, 이른 아침부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이제 교직원은 물론 일반 전시 관람객에게도 온전한 축제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작품이 전하는 행복과 몰입은 그렇게 매혹적이었다.

지난 1월,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출품한 작품은 총 512점. 그 중 오늘 전시회에 소개된 작품은 202점으로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등 미술 전 분야의 작품을 각 분야의 전문 심사위원이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미술관을 가득 채운 작품에서는 회원들의 기쁨도 뿜어져 나왔다. 개막식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이유, 손에 꽃다발을 가득 안고 찾아온 이들에게서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는 이유가 바로 예술이 주는 삶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리라.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의 참석과 함께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이번 미술대전의 최고 연장자로 참가한 김재정 회원과 최연소 참가자 김현주 회원도 특별히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미술대전 전시회의 전국 투어 예고

먼저 경과보고와 축하 인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미술대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희 성신여대 미대 교수는 “교직원들의 실력이 해마다 더욱 발전한다”라고 말하며 202점의 작품만 전시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또 어렵고



힘든 직장 생활 중에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애쓰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키팅 선생님 목소리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행복한 관람이 되기를 소망했다.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 역시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교직원 여러분이 평소에 갈고닦은 실력을 쏟아부은 작품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단상에 나섰다. “교직원이 참가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미술대회에 좋은 작품을 출품해주신 선생님과 축하하러 찾아와주신 모든 분,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품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꿈과 삶을 함께 즐겨주십시오.” 이번 전시는 예술의전당에서 전시가 끝난 뒤 더 많은 지역 회원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인 The-K호텔서울을 비롯해 The-K호텔경주, The-K지리산 가족호텔 등에서도 출품자 전시를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혀 큰 환호성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차성수 이사장의 말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지금, 행복한 우리를 위해

본격적인 관람을 알리며 전시실 문이 활짝 열리자 차성수 이

사장과 김정희 교수를 선두로 많은 관람객이 몰밀듯 밀려들었다. 이번 미술대전에 초대 작가로 참여한 권희연, 김정희, 이성도, 이열, 이웅배, 정일, 차동하, 한명욱, 허진 교수의 작품이 전시실을 의미 있게 빛내는 가운데, 전시된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작품 색선은 크게 ‘지금’ ‘행복’ ‘우리’로 나뉘어 있다. 각 주제별로 전시 작품을 따라가 보면 결국 ‘지금 행복한 우리’로 마무리된다. 말 그대로 ‘카르페디엠’의 여정이다. 오늘 최고 연장 참가자인 김재정 회원의 작품을 먼저 찾았다. 금강산을 직접 둘러본 감동을 사진으로 남기고, 다시 화폭에 담은 노장의 열정이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봉우리 덕분에 화폭이 좁게 느껴질 지경이다. 최연소 참가자인 김현주 회원의 작품 역시 고향의 아름다운 계곡을 사진으로 찍은 뒤 화폭에 옮겨놓은 것이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전시장은 축제 분위기다. 손에 꽃다발을 가득 안고 찾아온 가족, 친구들과 자유롭게 작품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예술의전당 미술관에 자신의 그림이 걸린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에 여념이 없다. 가발을 염색한 작품, 커피 여과지를 이어 붙여 만든 그림, 화려한 민화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든 작품이 넘쳐나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림을 감상하는 인파 속에 한 가족이 눈에 띈다. 안건주 회원(경산 금락초) 가족이다. 민화 속 연꽃, 연밥, 갈대, 원앙의 모습이 섬세하게 어우러진 민화는 안건주 회원이 1년 남짓한 경력으로 만들어 출품한 작품이다. 잎 하나에 수십 가지 색이 보일 정도로 섬세한 색감이 돋보인다. 전시 작품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행복했다는 안건주 회원은 이런 기회를 통해 많은 교직원이 미술로 교감할 수 있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편 김진영 씨도 아내와 아내의 작품을 보며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데이비드 호크니는 “나는 항상 그림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왔다”라고 했다. 전국 교직원의 미술 축제로 온전히 자리매김한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이 행복한 이유는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전시회에 가득한 미소와 감탄사 속에서 잔잔히 퍼져가는 소리를 듣는다. ‘카르페디엠!’



MINI INTERVIEW



오진봉 문화복지팀장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이 벌써 3회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공제회원님들 덕분입니다. 매년 높아지는 명성에 걸맞은 품격 높은 전시를 위해 국내 최고의 미술관인 예술의전당에 회원님들의 소중한 작품을 채웠습니다. 그 과정은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전시 공간의 제한으로 모든 회원님의 작품을 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교직원미술대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재정 회원(前 전북 진안제일고)

퇴직 후 서울로 올라와 복지관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림은 제게 자부심이자 행복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2000년에 정년퇴직 후 금강산 만물상에 올라 직접 찍은 사진을 그린 것이라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교직원공제회에 감사드리며, 복지관에도 공모전 안내장을 하나씩 놓아주면 더 많은 퇴직 교사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회원(용인 언남초)

전공자는 아니지만 평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우연히 미술대전 작품 모집 공고를 보고 출품했어요. 잠시 잊고 있다가 전시작으로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놀라는 한편 신기했습니다. 이번 전시로 제 그림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작품을 보고 배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을 그림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신 교직원공제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The-K Family



경주의 봄은 다채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눈길 닿는 곳, 발걸음 닿는 곳마다 꽃이고 숲이고 역사고 전통이다. 가정의 달 5월, 다양한 행사와 많은 기념일을 맞이할 때, 아름다운 천년고도 경주를 가보자. 어른들도 아이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함께 즐기기에 더욱 좋다. 눈과 입을 모두 충족시킬 경주,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글 이아도 사진 The-K호텔경주차



역사와 전통의 향취는 물론 다양한 체험과 축제, 맛까지 즐길 수 있는 경주로 떠나보자.

경주, 즐기거나 느끼거나

5월은 참 바쁜 달이다. 어린이부터 부모님, 스승님, 부처님까지 챙겨야 하는 날이니 발걸음도, 지갑도 분주하게 열리고 닫힌다. 이럴 때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천년고도, 경주를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 역사와 전통의 향취는 물론 다양한 체험과 축제, 맛까지 즐길 수 있는 경주로 떠나보자.

경주에 도착하면 양동마을로 먼저 가볼 일이다.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다면 경주에는 양동마을이 있다. 양반들이 주로 살던 반촌인 이곳은 ‘물(勿)’자와 비슷한 지형에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모여 살던 집성촌이다. 두 가문은 저마다 걸출한 인재를 배출해왔으며, 때로는 화합하거나 반목하면서 마을의 명성을 높였다.

농경지와 주거지, 의식 공간으로 나뉜 양동마을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해 마을의 형태는 초목이 가득하고, 노비가 사는 초가집과 양반이 사는 기와집이 어울려 펼쳐져 있다. 성씨 집성촌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 150여 호의 고택과 초가집을 만날 수 있는데 보물 411호인 무침당, 보물 412호인 향단, 보물 442호 관과정은 꼭 챙겨 보자.

교촌마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중요민속자료 제27호인 경주최씨고택과 국가무형문화재 경주 교동법주로 이름난 이곳에서는 12대 동안 만석지기 부호로 살며, 9대에 걸쳐 진사(進士)를 배출한 경주 최부자 가문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누비체험장, 토기공방, 예약당 등도 자

리 잡고 있어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경주시 보문로에 자리한 경주월드는 국내 놀이공원 가운데 두 번째로 개장한 곳으로,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은 지난 1998년부터 2015년 ‘실크로드 경주 2015’까지 총 여덟 번의 엑스포를 개최한 문화 박람회 현장이다. 1년 내내 전시, 공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 많은 사람이 즐겨 찾으니 아이들을 동반한다면 이곳 역시 필수 관람 코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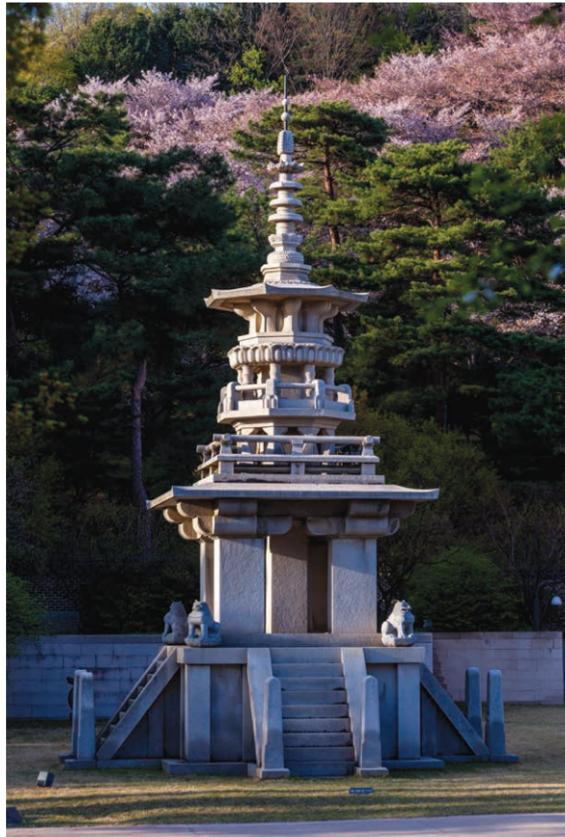
눈이 닿는 곳마다 보물ियो, 역사다

불교 국가였던 신라의 수도였던 만큼 경주에는 불교와 관련한 유적과 유물이 가득하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역사 여행을 한다면 이만한 곳이 없는 셈이다.

먼저 불국사에 가보자. 사적 제502호, 1995년 세계문화

The-K
호텔경주

**천년고도 경주,
가족과 함께 힐힐 노닐다**



유산 목록에 등재된 불국사는 방문하기만 해도 다보탑, 3층석탑, 연화교·칠보교, 청운교·백운교,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다양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완성되기까지 무려 3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불국사는 1년 내내 수많은 관광객과 불자가 몰린다.

바로 인근에 있는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김대성이 창건한 유적지다. 이곳은 돌을 다듬어 돌을 쌓고 그 위를 다시 흙을 덮어 만든 석굴 사원이다. 굴 가운데 흰 화강암에 조각한 석가여래좌상은 불교 예술의 극치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제강점기, 터무니없는 보수 공사로 본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석가여래좌상. 지금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봐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석굴암의 아름다움은 불편함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난다.

첨성대는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유물이다.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첨성대를 두고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

대라고 알려져왔으나, 광복 이후 첨성대의 기능에 대해 제단, 불교 건축물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첨성대를 짓는 데 사용한 벽돌의 개수는 362개로 이 수는 1년을 음력으로 사용하던 당시 날수와 같다. 첨성대의 몸통 부분은 27단으로 쌓았는데 창문 3단을 빼면 24단으로 24절기를 의미한다고 한다.

천년고도에서 만나는 The-K호텔경주

보고 느끼고 직접 만져보고 즐긴 경주의 시간 말미에는 꼭 들를 곳이 있다. 바로 경주보문단지에 위치한 The-K호텔경주다.

보문호수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최고의 뷰와 깔끔한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은 바쁜 나들이길에 쉬어갈 최고의 장소로 꼽힌다. 지상 9층의 아름다운 건물에는 힐링 명소로 꼽히는 온천 사우나, 실내외 수영장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5월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모션이 손님들을 유혹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열리는 스승의 날 기념 특별 우대 패키지다.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스탠다드 1실+조식 2인+웰컴 드링크 2잔(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을 주중(일~금요일) 11만2000원, 주말(토요일, 공휴일 전날) 13만8000원(부가세 포함)에 제공한다. 사전 예약은 필수다.

5월 가정의 달(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가정의 달 특선 디너 뷔페도 놓치지 말자. 5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뷔페식당 에델바이스에서 운영하며, 4인 이용 시 당사자 1인 무료, 3인 이용 시 당사자 1인 50% 할인을 적용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동반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한정 선물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고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즐겼다면 아름다운 보문호수를 산책해보자. 호텔의 아름다운 전경과 맑은 공기, 봄꽃을 느긋하게 즐기며 걸거나 자전거를 타기에 최고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천년고도 경주에서 만난 최고의 현대식 서비스, 휴식과 릴랙스, 힐링, 맛까지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The-K호텔경주에 필히 들러볼 일이다.



The-K호텔경주 부대시설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5 ☎ 054-745-8100



The-K호텔경주



객실



한실



한식당



뷔페식당 에델바이스



스파월드



함께 즐겨요! 경주의 축제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년버벌 페스티벌>

국가 대표 년버벌(비언어)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년버벌 페스티벌>이 경주에서 열린다. 말이 필요 없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이 축제에서는 난타, 플라잉, 페인 터즈 히어로, 드럼캣, 사춤 등을 즐길 수 있다.

- 📅 5월 4 ~ 6일
-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한수원아트페스티벌>

세계적인 미술 작품과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한수원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전시 & 아트 토크와 뮤직 페스티벌이 함께 어우러지며, 뮤직 페스티벌에는 소프라노 신영옥, 빈지노, 불빨간사춘기, 헤이즈 등의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 📅 5월 24일 ~ 6월 2일
- 📍 경주시민운동장 및 경주예술의전당



<2019경주어린이아트페스티벌>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 예술인에게 배우는 미니아트스쿨을 비롯해 큐레이터, 아티스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과 환상적인 발레가 만난 가족 뮤지컬 <렛잇고>도 공연한다.

- 📅 5월 4 ~ 5일
- 📍 경주예술의전당



2월 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7718억원 지급 최고액수령자 2억3508만원 받아... 1억원 이상 4007명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월 말로 정년· 명예 등 퇴직한 회원 8716명에게 총 7718억원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했다.

◆ **최고액 수령 회원 2억3508만원 받아**=이번 퇴직 회원 중 퇴직급여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회원은 2억3508만여 원을 받는다. 지난 1978년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뒤 40년 4개월 동안 1억273만여 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이자로 1억3235만여 원을 지급 받는 것이다. 이 같은 퇴직급여금 고액 수령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1억원 이상 수령자가 최초 탄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최초로 2억원 이상 수령하는 회원이 등장했다. 올해에는 1억원 이상 수령자가 4007명, 2억원 이상 수령자가 114명이나 된다.

◆ **연배울 적용돼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고액 수령자가 늘어나는 것은 오래 가입할수록 목돈 마련에 유리한 장기저축급여의 특성 때문이다.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당 600원씩 최저 3만원(50구좌)에서 최고 60만원(100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연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가 크게 늘어난다.

◆ **퇴직 회원 56.6% 분할급여금 가입**=2월 말 퇴직 청구한 회원 8716명 중 56.6%인 4935명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급여금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나눠 수령할 수 있는 노후보장형 금융상품이다.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점에 1인당 1회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금 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제109회 대의원회 개최 자산 34조6099억원 달성, 회원 79만 명 넘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월 25일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 제 109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결산보고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의원회 결산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공제회 총자산은 34조6099억원이다. 준비금

전입전손익은 1조4302억원, 당기순이익은 2850억원을 거양했다. 또한 기금운용수익으로는 1조4177억원을 달성, 4.1%의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특히, 대체투자의 경우 7805억원의 이익을 달성해 목표 대비 157.1%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금운용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 공제회는 이 같은 투자 수익을 바탕으로 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말 총자산 목표를 37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임원의 결격 사유를 정비하는 등의 정관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교직원라이프 '실속암공제' 5월 출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는 3대 질병 진단에 집중, 실속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속암공제(1905)'를 5월 선보인다. 3대 질병이란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뇌경색증으로, 10년째 부동의 국내 사망 3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전체 사망 원인의 46.4%를 차지하기도 했다.

새로 출시되는 실속암공제는 기존 종합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해 발병에 대한 보장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다.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보장한도도 더 확대해 일반암은 최대 6000만원, 고액암(뇌암, 골수암, 백혈병)은 최대 1억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갱신 주기 또한 기존 갱신형 보험과 비교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 10·15·20년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최대 100세까지다.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 기간 내 상담받거나 가입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다.

☎ **상담문의 1577-3993**

퇴직 예정 공제회원 대상 노후 준비 강연회 전국 8개 지역 개최 ... 5월 15~31일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퇴직을 앞둔 50~60대 공제회원을 초청해 전문가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보는 강연회를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50세 이상 회원만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응모 가능하다.

지역	일자	주제·강사	장소	초청 인원
서울	1회차	행복 조용갑	The-K티워	250명
	2회차		인천교육청	250명
인천	6. 11(화)		경기남부회관	200명
경기	6. 19(수)		경기남부회관	100명
대전	6. 12(수)	건강 이계호	대전회관	100명
광주	6. 13(목)	건강 최은하	광주회관	100명
전북	6. 20(목)		전북회관	100명
대구	6. 19(수)		대구회관	100명
부산	6. 18(화)	소통 박상미	국제신문사	200명



The-K설악산가족호텔, 리모델링으로 봄철 관광객 맞아

The-K설악산가족호텔이 최근 장기투숙객을 위한 레지던스 객실과 코인세탁실 등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객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호텔 전반을 리모델링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레지던스 객실'은 최근 국내외에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여행을 즐기는 롱스테이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장기투숙객이 자연 속에서 편안히 머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20평형(10실), 29평형(5실)을 마련했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가족 단위, 단체 관광객이 여가를 즐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야외 바비큐장과 사우나, 코인노래방, 휴게공간, 키즈존을 만들었다. 비즈니스룸과 세미나실을 신설하고 연회장을 보수해 기업 세미나와 연수 등을 개최하기에도 손색없도록 개선했다. ☎ **033-639-8100**

The-K호텔서울, 바비큐 비어 파티 시작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해 The-K호텔서울은 라이브 음악과 함께 다양한 바비큐와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바비큐 비어 파티'를 5월 10일 시작한다. LA갈비, 숯불닭갈비, 모듬소시지 등 특급 호텔 주방장이 직접 구워주는 라이브 그릴 요리와 프라이드 치킨, 토마토 샐러드, 훈제연어 샐러드, 깐쇼새우, 초밥&롤, 계절 과일 등 총 30여 종의 다양한 메뉴를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바비큐 비어 파티는 9월 28일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일·월요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6월 6일과 7월 30일, 8월 3일, 추석 연휴인 9월 12~14일에는 휴장한다. 가격은 월~목요일 성인 4만2000원이며, 일부 메뉴가 추가된 금~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성인 4만8000원이다. 소인은 요일 상관없이 2만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원, K멤버십회원, 호텔 투숙객, 20인 이상 단체 고객, 서초구민은 10% 할인 혜택이 있다. ☎ **02-526-9556**



The-K지리산가족호텔, 봄 패키지 선보여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봄이 가다 봄! 패키지'를 객실 1박, 조식 2인, 온천 2인의 구성으로 5월 한 달간 9만3000~14만6000원에 선보인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인근 지역은 각종 봄꽃 축제로 유명하다. 매년 5월 지리산 바래봉 및 허브밸리 일원에서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가 열린다. 철쭉은 해발 약 500m에서 만개하기 시작해 점점 정상으로 번져나가는데, 특히 5월 중순이면 정상 부근까지 철쭉이 만개해 온 산을 뒤덮는 장관을 연출한다. 또한 5월 17일부터 10일간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전국 최고의 장미공원답게 수천만 송이의 장미와 함께 향긋하고 따뜻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다.

☎ **061-783-8100**

The-K손해보험, 홈페이지 개편 오픈

The-K손해보험은 사용자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www.educar.co.kr)를 선보였다. 이번 개편으로 맞춤형 설계 등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보험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할 만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인증과 네이버페이, PAYCO 등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더불어 The-K손해보험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원데이자동차보험' 앱도 개선했다. 화면을 업무별로 통합 정리해 고객 접근성이 높아졌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The-K 매거진> 5월 즉석당첨 이벤트



온 가족의 행복을 담아, 사랑을 담아

<The-K 매거진>이 감사의 선물을 전합니다

이벤트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SPC모바일상품권
5천원권(300개)



GS편의점모바일상품권
5천원권(300개)



스타벅스 카페아메리카노 Tall(300개)

참여 방법 경품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5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6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가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피어오르는 사랑

긴 시간 머무는 이에겐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한 번이라도 인사를 나눈 사이에도 반가움이 듭니다. 저마다 사이에는 인연이 있나 봅니다. 서로를 잇는 인연 곳곳에는 따뜻함이 피어오릅니다. 각기 흩어져 날리던 시린 공기도 따뜻한 봄바람에 따로 또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5월호를 맞아 <The-K 매거진>은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여기저기 사랑을 품으며 노래하는 곳을 찾아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추억하도록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N서울타워가 흰히 보이는 여명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복이 그리운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변정훈 선생님의 따뜻한 편지는 왜 그곳에 가야만 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5월의 선물인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서로를 스마트폰에 담으며 셀카를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덩달아 편집팀의 얼굴도 함께 움직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카네이션을 입에 물고 장난치던 아이들과 변정훈 선생님. 돌아오는 스승의 날도 여전히 즐거움만 가득할 것 같아 이 글을 쓰는 내내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네요.

다음 날에는 정병익 선생님을 만나러 부산 동래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에 닿았습니다. 전날 촬영에는 서울에 비가 오더니, 이제는 부산으로 비구름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옛 교복을 들고 동래고에 도착하자 정병익 선생님께서 반겨주십니다. 무거운 짐도 한 번에 들어주셨죠! 다양한 연령층에도 화기에애한 교실이 되는 마법은 누가 부리는 걸까요? 익살스러운 포즈로 큰 웃음을 주셨던 2학년 1반 학우님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나 피어오릅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말이죠. 네 자매 선생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은 한마디로 '짧지만 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룡포 바다에 빠지고, 맨발로 해변을 거닐고, 모래사장에 누워 하늘도 보고... 네 자매 선생님의 첫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눈물과 함께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막내 최희정 선생님이 큰언니 최희경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그 순간, 그곳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때는 어땠고요. 눈물범벅이 된 네 자매 선생님은 물론 강나은 작가님과 한상무 실장님마저 벽차오르는 순간을 나눴습니다. 네 자매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면서요.

5월호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은사님의 따뜻한 눈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빛나는 봄이 될 거야.”

전국에 게시는 모든 선생님께 5월의 빛나는 봄을 올립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귀여운 아들의 웃는 모습,
승진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남편,
다음 달 타게 될 5년 부은 적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 반 아이들.

때론 생각만 해도 웃음 지어지고
힘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항상 교육가족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